

CONSIDER ATION

HABIT

2011 Taeyangmetalindustrial 태양가족

COMPETIT IVENESS

배려 · 습관 · 경쟁력

장 藏

두 頭

노 露

미 尾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덩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모습

말로 진실을 숨겨두려 하지만 실마리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

오백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갑자기 노래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내내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고비나 위기의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비와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똑심이 곧 우리의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1 Taeyangmetalindustrial

- 04 창업주의 가르침 | 창업주의 가르침 / 顧客의 立場에서 營業을 하자
- 06 회장님 사외동정 | 안산상의 상임위원회 개최 외
- 08 언론에 비친 우리회사 | 한국철강신문『춘계특집』 파스너 시장 동향과 전망
- 10 태양뉴스 | KS 제품인증 획득 외
- 12 온고지신 | 명예회장의 말씀 및 경영노하우
- 14 기획특집1 | 기술연구개발 / 환경친화형 고강도 냉간 압조용 선재의 개발에 대하여
- 16 기획특집2 | 품질 및 불량률 제로 도전 / KS인증의 의미
- 19 협력업체 탐방 | (주)대웅 이명환 사장
- 22 한계를 딛고 진화하는 새로운 문화 | Social Network Service
- 24 이색 異色 |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 오맹식당
- 26 문화와 예술 | 흥미있는 대중미술 '에로티시즘'
- 28 발길따라서 | 월미공원
- 30 사우동정



10



11



19



28

태양금속공업(주) '태양가족' 사보

발행일 2011년 6월 25일 | 발행인 한우삼 |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5번지 031)490-5518 www.taeyangmetal.com
기획·편집디자인 큰하늘 031)402-0876 | 사진 유광식



營業姿勢(영업자세)

顧客(고객)의 立場(입장)에서 營業(영업)을 하자

西紀 一七九一年 五月 三日

‘좋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을 인간 그 자체로 인식하며 신뢰에 보답하는가 하면 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고객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기주장만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얻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코비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넣어 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땀이 차서 축축할 수도 있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냄새가 나는 다소 꺼림직한 그 곳에 자기의 발을 넣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이 영업을 하는 기본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안산상의 상임위원회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는 지난 11월 29일(월) 3층 회의실에서 제9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010년 11월 29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개소식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1월 29일(월) 진행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안산 지역의 체류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잔신도시 고잔역 맞은편 부일빌딩 2층에 인천출입국 안산출장소(소장 안석규)를 1일부터 운영해왔다.



2011년 1월 5일

대한상의 신년인사회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5일(수)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2011년 1월 27일

2011년도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신년인사회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목) 한국노총안산지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회장님 사외동정



2011년 2월 17일

안산공과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제23기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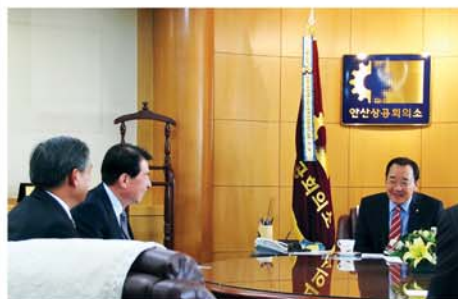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 (목) 한국노총안산지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2011년 3월 3일

안산시 상록구청 신청사 개청식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3월 3일 (목) 상록구청 다목적대강당에서 열린 『상록구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3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삼 회장은 표지석 제막과 기념식수를 하며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2011년 3월 11일

인천인력개발원 원장일행 방문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3월 11일(금) 인천인력개발원 원장일행의 방문을 맞아 상호 우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1년 3월 15일

제1기 CEO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 개강식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3월 15일(화)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기 CEO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했다.

『춘계특집』 파스너 시장 동향과 전망

작은 부품으로 세상 움직이는 ‘파스너’

자동차와 철강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흔히 판재류만을 떠올리지만, 자동차 완제품이 나오려면 볼트, 너트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용 볼트와 너트를 제작하는 곳이 바로 파스너(Fastener) 업체다. 자동차산업은 파스너업계의 대표적인 수요산업이다. 볼트·너트는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가전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부품이다.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일종의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설비투자 및 기술 부문 투자에 비해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 생산은 고객주문생산으로 주문에 맞춰 다품종소량 생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 파스너, 자동차시장과 동반 성장 ■■■■

국내 파스너업계의 주요 수요처는 앞에서 살펴봤듯 자동차, 가전, 기계 등 다양한 가장 비중이 큰 수요산업은 역시 자동차산업이다. 국내 파스너업체들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1970~8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1990년대 들어 주 수요처인 자동차업체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내수시장 성장이 둔화를 보임에 따라 파스너업체들도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내 자동차업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파스너업체도 동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자동차산업을 보면, 내수는 국내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및 저금리 할부 등 마케팅 강화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약 146만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미국,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 신모델 투입확대,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 윌드컵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약 277만대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2011

년 자동차산업전망’에 따르면, 2011년 자동차 내수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5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경기 및 민간소비 성장세 지속과 고용안정, 잠재 대체수요 확대와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우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EU 시장의 수요감소, 해외생산 확대 등 감소요인도 있으나 신흥시장의 수요증가세, 한-EU FTA로 말미암은 관세 인하, 국산차의 품질향상 및 수출 전략차종 투입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290만대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 ‘원자재 공급불안’ 시급한 해결 과제 ■■■■

국내 파스너업체들은 소재를 대부분 세아특수강, 동부특수강 등 국내 냉간압조용선재(CHQ-Wire)업체에서 조달한다. 자동차업체, 가전사 등 주요 고객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스너 업체들은 국내산 소재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국내 파스너업체는 원자재 공급에서 국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국내 선재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등의 성장으로 수요는 계속 확대되면서 국내 파스너업체의 원자재 공급은 상당히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대지진 여파 때문에 국내 주요 CHQ선재업체들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파스너업체에도 수급불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JFE 조강 샌다이공장 및 NSC 무로란제철소에서 월 6,000~7,000톤 규모의 CHQ용 선재를 공급받아온 동부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 선재 1차 가공업체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진 피해 발생 이후 JFE조강의 수출담당 부장은 국내 일부 선재 1차 가공업체에 방문해 피해상황 설명과 함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물론 동부특수강과 세아특수강은 현재 1개월치 이상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원자재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 하지만, 기 확보한 재고를 소진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일본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일본에서 받던 물량을 대체할 방안이 없어서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동부특수강과 세아특수강에서 물량을 받아서 자동차용 볼트와 너트 등을 제작해온 국내 파스너업체들로 원자재 수급 불안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완성 자동차업체에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아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2~3개월 후 상황은 매우 급하게 돌아갈 수 있다.

■ 꾸준한 설비증설로 경쟁력 강화 ■■■■

국내 파스너업체들은 외형적으로는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증대 등 큰 성장을 이루는 듯하지만 수익성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이를 제품 단가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매출은 늘지만, 실제 수익성은 떨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내 파스너업체들은 규모를 늘리는 추세에 있다. 이윤 감소라는 사업상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신제품 개발, 신수요 창출 등과 더불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설비증설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파스너업체는 2010년까지 많은 설비증설을 진행했고, 2011년에도 일부 업체들이 추가로 설비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파스너조합 어진선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설비투자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파스너업체의 제품 수준은 자동차용을 놓고 볼 때, 일본과 비교하면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 품질에는 대만과 중국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는다. 이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설비증설과 기술향상에 투자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도로 파스너 업체들은 설비투자를 지속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파스너 업체인 태양금속공업은 자세한 투자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70억 원 가량을 설비 증설, 보수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화금속도 300억원을 투자해 올 9~10월 준공을 목표로 당진에 연간 1만톤 생산규모의 볼트(나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설비는 현재 시화공장의 설비를 그대로 이전하고, 자동화 설비 10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진공장 준공 이후 회사는 현재 안산 시화공단에서 당진 신평협동화산업단지지로 완전 이전하게 된다. 풍강도 올해 신규 공장에 태핑(Tapping: 드릴로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나사 탭으로 암나사를 절삭하는 작업)설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신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현재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볼트도 수요증가에 발맞춰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꾸준히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품질혁신을 최우선으로 삼아 노력한 결과 201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09년에도 30%의 매출액 증가를 한바있다.

■ 조합으로 뭉친 파스너업계 ■■■■■■

국내 철강·비철금속업계 조합 중 가장 활발한 활동과 회원사 간 높은 친목도를 보여주는 곳을 꼽으라면 바로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어진선, 이하 파스너조합)'을 들 수 있다. 파스너조합은 국내 파스너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 산업을 포함한 연관 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제 목소리를 내고자 2007년 중소기업청의 공식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파스너산업의 대표 단체다. 파스너조합의 주요 사업으로는 업계 최초로 파스너 전문 기술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사업', 국내외 파스너 전문 전시회를 발굴하여 개최 혹은 출품하는 '전시사업', 원자재는 물론 부자재의 구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동구매 사업',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파스너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5지역 파스너협회 교류대회' 등이 있다.

파스너조합은 지난 2월부터 포스코 원자재 공동구매 발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동구매 물량은 연간 1만톤 수준으로 흡족할 만한 양은 아니지만, 포스코 원자재 확보가 힘들었던 소규모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반갑습니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한성훈 이사

올해 조합 이사직을 맡으셨는데 향후 조합 및 회원사 발전을 위한 역할은?

먼저 이번 파스너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스너조합은 2007년 5월 창립되어 이제 만 4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걸음마를 뛰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개최되는 '금속산업대전'과 '5개국 파스너협회 교류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위하한 이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회원사의 화합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너업계는 매출 외형에 비해 이윤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극복 방안은?

파스너의 제조비용 중 원재료 비율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원재료는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거듭되는 단가 인상이 지속되고 인건비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급 중국산 제품 때문에 시장이 점차 잠식되어 가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다면 원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및 전문적인 수출상사를 이용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세계 시장에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열심을 다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소 규모 조합 회원사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은 중소 규모의 조합회원사뿐만 아니라 업계의 총체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수요에 따른 CHQ생산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 규모 회원사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합의 통합구매도 수급 불안을 해결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파스너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데, 어떤 내용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중소규모의 업체는 독자적인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코트라 등의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기획해 개최하여 준다면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 파스너업계의 발전을 위해 조합과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내에 800~900여 개의 크고 작은 동종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회원사가 늘어 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교류와 협력이 더 원활해지면 가격,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우리 파스너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조합의 더 많은 지원과 각 회원사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차종혁기자 / jhcha@kmj.co.kr

2011. 2~2011. 5

TAEYANG news

우리 회사에는 지난 네 달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회사의 이런저런 소식... 한눈에 알아보자



2011. 4. 13 ~ 4. 14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 실시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 및 효과적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가 실시되었다. 3자 인증심사와 동일한 프로세스 어프로치 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1. 4. 21 ~ 4.22

AS9100 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실시

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AS9100에 대한 사후심사가 국제 인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진행되었다. 본 인증은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항공우주 산업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당사는 2010년 1월 최초 인증하였다.



2011. 2. 9

KS 제품인증 획득

지난 2월 9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한국 산업규격인 KS 제품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KS제품인증 획득으로 신동력 신규사업 발굴 및 잠재고객 충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당사의 제품이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함을 인증하였다.



2011. 3. 16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워크샵 실시

지난 3월 16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레벨업을 위한 워크샵을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였다. 워크샵에서는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내부심사 포인트, 자동차산업 프로세스 접근 방법 교육 및 품질본부장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내부심사원 토의를 통해 차기 내부심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1. 5. 3 ~ 5. 4

ISO/TS1694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실시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기술규격인 ISO/TS16949에 대한 사후심사가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진행되었다. 본 인증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요구되는 규격으로 원격지인 중국 연대법인을 포함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어프로치 방식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2011. 3. 7 르노닛산(주) 방문

3월 7일(월) 일본 르노닛산(주) Sasaki Shuichi 외 3명이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르노닛산자동차 신규 비즈니스를 위한 업체실사 및 공정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 3. 21

3월 21일(월) 중국 유산시 인민정부 서울사무소 조광 대표 외 1명이 중국 투자건과 관련하여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 목적은 본사 견학 및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회사 홍보 영상 및 벤치마킹물을 시찰하였다.



2011. 5. 24 INFASTECH JAPAN 방문

5월 24일(화)INFASTECH Japan Mr. Susumu Kataoka 외 1명 이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소개 및 벤치마킹, 공장견학을 통하여 RFQ 수주관련 협의를 하였다.



2011. 3. 8 MEIDOH 방문

3월 8일(화) 일본 MEIDOH CO.,LTD Hiroyasu Hasegawa 사장 외 2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자동차산업과 관련 부품업체 동향 및 한국파스너업체 동향 파악을 통하여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유용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1. 3. 31 서울모터쇼 참가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12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1년 서울모터쇼가 개최되었다. 서울모터쇼는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자동차 전시회로서 참가업체는 8개국 139개업체로 총 관람객 약 100만 5천명이 관람하였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부품사라는 애사심을 고취하며, 플라스틱 파스너와 스티어링 부품군 신제품들의 전시 홍보를 통해 국내 파스너업체 선두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였다.



2011. 5. 26 중국경제인 방문

5월 26일(목) 한중지역경제협회 주관 중국경제인 Mr.Wang Ping 외 7명이 한국 우수기업벤치마킹을 위해 한중지역경제협회를 통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이날 한우삼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참석하여 중국경제인 일행을 반갑게 반겨주었고, 선물증정, 회사소개, 벤치마킹, 생산현장 등을 견학하였다.



2011. 3. 19

3월 19일(토) 2011년도 회사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팀장급 간부사원 31명이 대부도 소재 해병대 캠프장을 찾았다. 이날 해병대 캠프 훈련과정을 통해 의식변화 및 강인한 정신력을 고취하고자 힘든 훈련과정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하나 되어 태양가족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11. 4. 6 SANKEI INDUSTRY 방문

4월 6일(수) 일본 SANKEI INDUSTRY Co.,LTD Konishi Shojiro 상무 외 2명이 모터쇼참관 및 수출품 협의를 위하여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파악 및 현장견학을 통해 물량증대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2011. 5. 29 간부 한마음 체육대회

5월 29일(일) 안산 단원구 선부동 원일초등학교에서 과장 이상 간부사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퇴팀, 창조팀으로 구분하여 족구, 피구, 축구, 이어달리기 등에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태양가족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溫故知新

옛 교훈 속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태양금속 창업의 정신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지녀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공헌이다. 사회공헌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적 가치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태양금속은 이미 오래전 한우삼 회장 취임과 함께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모토로 사회공헌의 단초를 쌓았다. 놀랍게도 미래에 화두가 될 기업철학을 한 발 앞서 실천하며 기업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었던 셈이다.

안전도 실사구시, 실천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

태양금속의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며 회사경영을 한 한우삼 회장의 안전 의지는 남달랐다. 특히 회사내 안전관리전담부서인 안전환경실을 신설, 산업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인간존중의 가치를 단순히 구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태양금속의 실사구시 이념 과도 상응하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1994년에는 환경문제를 사업 아이템으로 채택, 생산 폐수 및 금속회수설비를 연구·개발함으로써 환경개선은 물론 수입대체 효과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선 기업철학으로 주목받다

태양금속의 모범적인 환경관리는 환경청에도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해 5월 환경청 박윤훈 청장이 경기도 방문시 환경관리 모범 시설업체로 태양금속의 환경처리 현장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태양 금속은 제27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당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제일주의를 향해 매진하던 시기였던 만큼 태양금속의 환경 경영은 독특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각종 수상은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특히 1992년 6월 KBS 제1라디오는 '경제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층보도를 하기도 했다.

노사가 따로 없는 태양금속

태양금속의 노사관계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 같았다. 1990년대 중반 태양금속 직원 800여 명과 회사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회사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노조도 경영진 못지않게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태양금속노조는 1995년 말에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생산대책부를 구성하고 '생산성 향상 90일 작전'이라는 운동을 전개했다. 노사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또 한 번 발현되었던 것이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노사가 많은 요즘, 어려움 속에서 회사를 함께 키우는 역사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태양금속의 창업주 고 한은영 명예회장이 걸어온 역정이 창업부터 1992년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제작되어 KBS 제2라디오에서 방송되었다. 기업역사 방송 '경제실록 50년'에 '하나로 38년' (극본: 이호, 연출:백용철)의 부제로 태양금속의 38년 역사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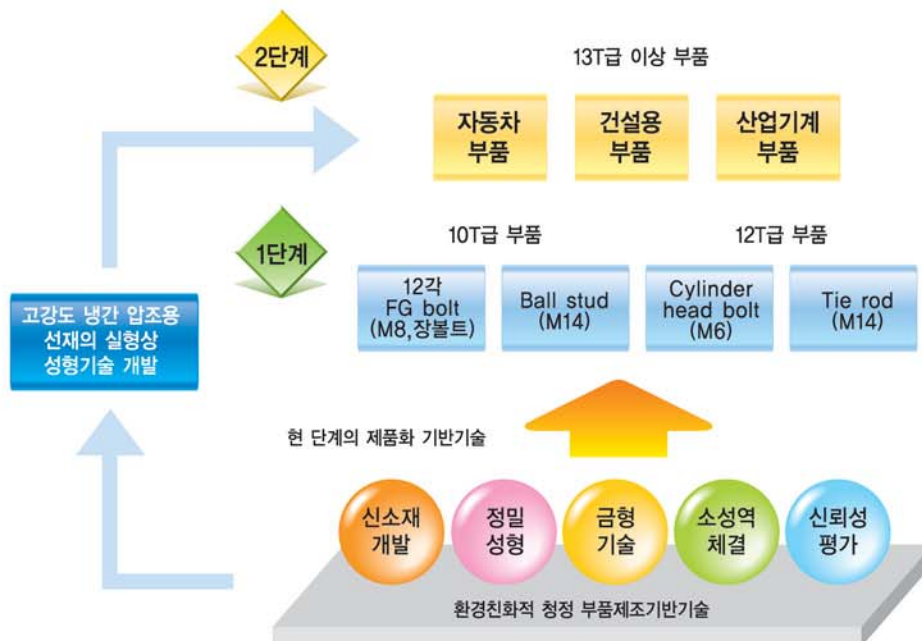
어떤 사회나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기업은 특히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한 조직으로 기업과 환경, 그리고 회사와 노조가 얼마나 많은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느냐가 존립의 관건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금속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공헌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다가 올 미래를 앞서 준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전도(前途)를 밝힌 고 한은영 회장의 혜안이 놀랍다.





환경친화형 고강도 냉간 압조용 선재의 개발에 대하여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동향은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친환경, 경량화를 통한 연비개선을 중점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동향에 맞춰 현재 우리 회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청정기반 전략기술개발사업(ESW고강도소재 성형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로 10T급부터 시작하여 12T급까지의 성형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샤시, 구동 또는 엔진구동 부품에서도 부품성형 후 기계적 특성 확보를 위한 Quenching(담금질)과 Tempering(뜨임) 열처리를 거치는 조질강(Q/T강)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제조공정의 단축, 에너지의 절약,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열처리 생략강(비조질강)의 개발에 전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량화와 성능향상을 통한 연비의 향상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기술 및 공정개발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엔진 및 구동 부품의 원가 경쟁력 강화, 고강도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존 조질강선의 볼트 제조시에 발생하는 주요 오염원으로는 냉간 단조시에 사용하는 단조유와 후열처리 공정 및 직선교정의 교정유 등이 있다. 특히 후열처리 공정은 볼트제품에 강도를 부여하는 공정으로서 퀸칭, 템퍼링 열처리를 500~1000℃ 온도에서 4~5시간 행하며 주요 열원은 LPG 혹은 LNG이외에도 전기만으로도 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직선교정 공정은 후열처리에 발생하는 제품의 비틀림 발생을 교정하는 것으로서 교정 작업시에 교정유가 사용되며 폐기물로 위탁 처리되고 있다. 고주파 유도가열식 선조질강의 볼트 제조시에 발생하는 주요 오염원은 냉간 단조시에 사용하는 단조유 뿐이다. 선조질강은 이미 고강도이므로 후열처리 및 직선교정이 생략된다. 이는 열처리 생략형 강선인 선조질강의 매우 큰 환경적인 장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냉간 압조용 선조질강에 대한 국내 냉간 단조 성형기술의 개발 및 금형 수명 개선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양산품(조질강 적용)과 동일하게 작업할 경우 금형의 수명이 현저하게 낮았고 이를 금형의 구조 및 재질 개선을 통하여 금형 수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낮은 금형수명으로 인해 실제 양산적용에는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고강도 소재에 최적화된 공정설계를 연구 개발하여 왔다. 현재 3차년도의 12T급 실린더헤드볼트까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조질강 적용품의 금형수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발초기 금형수명에 비하면 상당한 진척을 거두고 있다.

환경친화형 고강도 냉간압조용 선조질강을 소재로 한 냉간 단조 성형기술 개발을 통하여, 후열처리 생략에 따른 대기,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초기부터 저감시켜 작업환경의 청정화를 달성하고, 제조공정의 리드 타임 단축을 통한 관련 부품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기계, 자동차, 건설분야 등의 수요업체를 통해 선조질강을 소재로 한 냉간 단조품을 기초 전라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KS 인증의 의미

우리회사는 국제규격에 준한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품질기반을 토대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11년 2월 9일 KS 제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KS인증은 국가기관 및 신동력, 신규사업 분야의 잠재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국가 인증제도로 KS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KS 인증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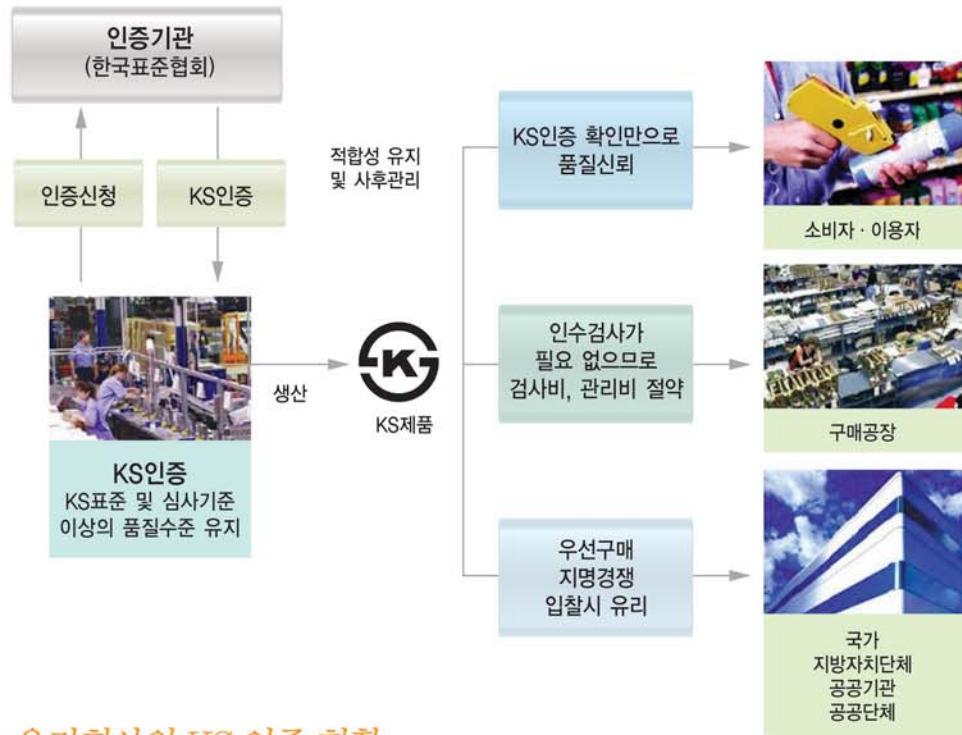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KS 인증제도는 KS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자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인증요건에 합당하도록 관리능력을 갖춘 후 공정 및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인증제도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장, 사업장별로 운영주체의 책임 하에 자체 검사 등을 실시하고 KS 표준 수준 이상인 제품만 출시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S 표준은 공공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규제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및 일반 소비자들이 별도의 품질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KS 인증에 대한 우대 및 혜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 자율안전확인(KPS), 형식 승인 등 검사, 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KS 인증제도 구성도



우리회사의 KS 인증 현황



표준명 6각 볼트

표준번호 KS B 1002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중, 6g(8.8, 10.9)

제품인증일 2011. 2. 9



품질은 제1의 가치기준

우리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요구되어지는 자동차, 선박, 항공우주 등 폭넓은 국제규격 인증을 추진하며 비약적인 경영혁신과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불만 단 1건으로 우리회사의 오랜 신뢰와 품질체계가 무너진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KS 표준처럼 기본을 준수하고 반드시 표준을 이행하여 고객 요구품질 충족과 고객을 감동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은 제1의 가치기준”이라는 일관된 품질의식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개인별 Ⓜ마크를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품질에 열정을 다해 보기로 하자.



한눈에 보는 우리회사의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

고객문의 및 신규고객 홍보용으로 오려서 다이어리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

2011. 6월 현재

NO	규격명	사이트	최초 인증일	인증범위	인증분야
1	ISO 9001 :2008	본사	1994.05.05	볼트, 너트, 냉간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모든 산업 품질경영 시스템
		북미법인	2005.07.05	볼트, 너트, 냉간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연대법인	2006.12.12	볼트, 너트, 냉간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장가항법인	2008.04.08	자동차용 조향장치 부품(BALL JOINT)의 생산	
2	ISO/TS 16949:2009	본사	2003.07.08	볼트, 너트, 냉간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북미법인	2005.07.05	볼트, 너트, 냉간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연대법인	2006.12.12	볼트(엔진, 차체, 스티어링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용) 및 가이드로드(브레이크 시스템용) 생산	
		장가항법인	2008.10.27	조향장치 부품(BALL JOINT)의 생산	
		인도법인	2009.01.14	Manufacture of Fasteners for Automotive Industries	
3	ISO 14001 :2004	본사	2002.12.24	자동차용 볼트, 너트, 강구, 스크류, 냉간 단조품 및 가공품의 생산	모든 산업 환경경영 시스템
		인도법인	2009.01.30	Manufacture of Fasteners for Automotive Industries	
4	KOLAS (ISO/IEC 17025:2005)	본사	2000.01.19	역학시험(금속 및 관련제품, 기계요소, 물리적 시험) 화학시험(철강)	시험
		본사	2005.11.01	선형치수, 복합형상, 기타 길이 관련량, 힘, 경도	교정
5	PED (압력기기 지침)	본사	2007.09.18	Forged bolts and nuts Carbon steel Austenitic Stainless	선박
6	OHSAS 18001:2007	인도법인	2009.01.30	Manufacture of Fasteners for Automotive Industries	안전보건
7	AS 9100:2004	본사	2010.01.12	Manufacture of bolts for Aerospace Industry	항공우주
8	품질 5스타	본사	2010.08.31	HMC, KMC 1차 협력사 품질5스타 등급	자동차
9	KS B 1002	본사	2011.02.09	6각 볼트 [중, 6g(8.8, 10.9)]	내수산업



작지만 강한 회사를 목표로
법인설립 10년 만에
연간매출 60억을 이루어 낸

주식회사 대웅

/ 주식회사 대웅 /

자동차용 볼트가 70%, 선박용 20%, 건축용 10%의 비율로 볼트생산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웅은 2002년 법인 설립 후 현재 2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연간매출 60억을 달성하며 회사 슬로건처럼 작지만 강한 회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자동차용 볼트를 6mm~20mm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는 대부분 제작된다고 볼 수 있죠. 1995년에 처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2002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 개인 창업을 하다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거래를 해야 했었는데, 현대자동차에 SQ라는 인증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지정된 설비를 갖춰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비를 갖추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업체를 법인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체가 태양금속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인설립 후 (주)대웅은 기계들을 고속장비로 교환했고 그 결과 생산량이 많아져 태양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고속장비로 바꾸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태양과 더 편리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는 손해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거래하다보니 서로에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대웅의 원칙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내실경영을 하고자 하는 이명환사장의 경영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오며 IMF같은 사회적 위기들도 있었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있는 설비를 가지고 탄탄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우리 회사의 위기 극복의 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 나름대로의 위안이랄까! 사업에 있어 무조건적인 과감함 보다는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봐요.’

1인 기업의 시대이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창업이 가능한 기회 시대. 그러나 기회만큼이나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위태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기업가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절대 한방을 원해서는 안돼요. 그런 마음은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이 업종이 예전에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 개발에만 목적을 갖고 설비에만 무리한 투자를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검토 후에 설비를 하려고 했지요. 그것이 버틸 수 있는 동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꿈 + 목표 + 신념 = (주) 대웅 = 이명환 /

‘사실 제 첫 직장이 태양금속이었어요. 그때 뵈었던 故한은영 회장님은 상당히 건설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죠. 꼭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분위기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1974년부터 군 생활 3년을 제외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왔으니 30년이 넘었네요.’

보통의 애정과 의지가 아니고서야 30년을 외길인생으로 살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명환 사장을 이토록 단단한 끈으로 잡아 준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전 무척 재미있었어요. 정말이지 엄청나게(재차강조) 재미있었어요. 저에게는 언제나 큰 목표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매년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 대비 80%를 달성했을 때의 쾌감이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본금 400만원으로 출발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명환 사장은 늘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확신을 가져왔다. 그 꿈과 목표와 확신이 결국 (주)대웅의 반석이 되었고 그 반석 위에 또다시 새로운 꿈과 목표라는 기둥을 세워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내공 있는 기업가로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해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요. 예를 들어 내가 5년 후에는 지금 있는 공장을 1000평으로 옮겨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출발한 사람보다 분명히 5년 후에는 달라지는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죠.’

/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

인터뷰 내내 희망에 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타인에게까지 영향력 있는 긍정의 에너지, 본인의 노력과 그에 뒤따르는 결과들에 대한 확신의 에너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타고난 인간미 가득한 따뜻한 에너지. 그럼에도 경영자로서 짊어져 보았을, 그리고 짊어지고 있을 어려움은 무엇일까 물었다.



‘사람이죠. 아직 이 제조업 기술을 가르치는 공기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회사에서 인적투자를 많이 해야 하죠. 그렇게 인적투자를 했는데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친구가 믿음이 가고 성실하다 판단되어 투자를 해서라도 재목감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정을 줬는데 그냥 떠나버렸을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매출 1억 떨어지는 것보다 더 허탈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석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통해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명환 사장.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큰 게 아닙니다. 토요일처럼 일찍 끝나는 날 모든 직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손 깨끗이 씻고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혼자만 잘사는 회사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의 기술력 보다는 생활, 직계가족, 그래서 필요할 한 달 생활비를 고려하여 급여를 조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노사의 관계가 아닌 가족애가 전해졌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돌 지난 아이부터 92세 노모까지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렇게 전부 78명이 이 회사의 가족들이죠. 급여를 그걸로 조정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기본월급이 300이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는 생활이 어렵겠다 싶으면 조금 더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뜻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직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이명환 사장의 몫. 여전히 매달 있는 조회와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되는 영업생산회의에서 업무지시가 끝나고 나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족으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을 전달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경영자로서, 리더로서도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저는 사업가로서 60점, 가장으로서도 60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 던진 게 100이라면 그 중에 상대방을 설득시킨 것이 아직은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숙제죠. 10년 후에는 10% 정도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 꿈은 언제나 현재진행형 /

희망과 목표를 분명히 하되 욕심내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이명환 사장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베풀며 살아야죠. 먼저 베풀어야 온다고 생각해요. 100원을 벌어서 90원 갖고 10원만 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이 돌아오고 욕을 하면 욕이 되돌아오는 게 삶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내 것만 가지고 나만 살고자 하면 분명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밋지는 것 같을 수 있으나 결국 돌아오게 되어있어요.’

현재 500평인 공장을 1,000평으로 옮기고, 연간 매출 30% 상승과 부채 0원의 회사로 만드는 것이 향후 5년 계획이자 꿈이라는 이명환 사장.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 또 다른 누군가의 꿈도 함께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이 전해진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희망찬 인터뷰였다.

생각하라! 개선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Social Network Service

폭풍 인기

한계를 딛고 진화하는 새로운 문화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요즘 말로 폭풍 인기다. IT 근접성이 뛰어난 젊은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한 두 개의 S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특히 책상 위 컴퓨터를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응축시킨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SNS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머잖아 '전 세계의 사람들을 네트워크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처럼 SNS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그 결과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 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경쟁과 지속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였으며 편지와 전보, 전화를 넘어 인류는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SNS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인류는 호모 루덴스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경쟁도 하지만 놀이를 개발하고 즐기는 존재이기도 하며 이를 증명하듯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콘텐츠들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잡담'이다. 원조라 할 수 있는 트위터의 경우 140자까지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가 바로 트위터를 특성화 시키면서 잡담을 통한 정보와 감성의 전달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또 '친구찾기' 서비스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페이스북 역시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트위터보다 많지만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떤 SNS를 이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 사용환경이나 콘텐츠의 활용, 응용 서비스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SNS는 NHN의 미투데이이다. 그 이면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있지만 한글과 친숙한 인터페이스도 한 몫 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소통 콘텐츠 역시 개인의 일상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SNS가 밴드나 그룹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을 묶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의 콘텐츠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 가는 토종 SNS도 있다. '쉽고 정겨운 SNS를 찾는다면'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헬리젯(대표 유정원)이 대표주자다. 헬리젯은 아무리 SNS도 인간적인 면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친근한 연대를 강조한다.

얼마 전 개최된 서울디지털포럼(2011SDF)에서 이동형 나우프로필 대표는 '향후 SNS의 발전 방향은 개방성에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말의 이면에는 개인이 소장한 콘텐츠의 소통이 SNS를 통해 훨씬 다양화, 그리고 대량화 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특히 이런 발전은 스마트폰의 위력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또 다른 SNS가 개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SNS는 아직 진행중이다. 아니 어쩌면 영원한 진행형일지도 모른다. 이는 SNS 역시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이며 문화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결국 우리는 머잖아 어떤 하나의 SNS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류의 본질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선한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





배고픔으로 완성된 퓨전의 미학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오덴식당



食경



“오박사님께서 꼭 잡수실 음식이 있어서 대통령의 만찬 제의를 거절하셨는데 그 음식이 이 부대찌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이 부대찌개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이번 한국 방문 때 꼭 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교포들이 만들어 파는 부대찌개가 많이 있지만 어릴 때 먹던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허영만화백의 만화 '식객'에 나오는 대사다. 대통령의 만찬 제의를 거절하고서라도 꼭 먹어야 했던 음식 - 부대찌개. 이것은 비단 허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의 진정한 원조! '오뎅식당'이 그 이야기의 배경이다. 먹자골목 좀 형성되었다 싶으면 간판 마다 붙는 원조가 아닌, 진짜 원조집 구경 한번 해보시겠는가?

어찌 보면 흔해빠진 게 이거다 싶을 정도로 웬만한 식당가에는 빠짐없이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 부대찌개이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이 음식에는 사연이 깊다. 6.25전쟁 직후 식량난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미군부대에서 버린 햄과 소시지를 이용해 끓여 먹었던 것이 바로 부대찌개의 기원이다. 차츰 느끼한 맛을 해결하고자 김치나 고추장과 같은 얼큰한 재료를 넣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음식 중 하나가 됐다.

근대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시작돼 우리나라 대표적인 퓨전요리로 자리 잡은 부대찌개. 그 길 위에는 오뎅식당 허기숙 할머니의 역사가 함께한다.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서 가장 부대찌개와 안 어울리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는 처음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포장마차의 이름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부대찌개 식당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지금의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50여 년간 한결같이 부대찌개골목을 지킨 허기숙 할머니. 그러해서인지 부대찌개 집만 30여 곳이 즐비한 이 골목에서 유난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고, 인터넷에 부대찌개라는 단어를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도 바로 이 오뎅식당이다. 반찬이라고는 신김치와 절인무가 전부이고 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여느 부대찌개집보다 많지 않아 보이는데, 보글보글 찌개가 끓기 시작하고 그 맛을 보는 순간, 다른 집과는 달리 담백하면서도 개운하고,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국물 맛이 이 집을 찾는 이가 많은 이유라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삼겹살도 아닌 것이 솥뚜껑에 끓여져 나오는 것인데, 먹다보니 '전골냄비로 쓰기에 이만한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안성맞춤이다. 이 얼마나 한국적인가!

부대찌개 역사의 산증인 허기숙 할머니의 50년 손맛에 한번 반하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솥뚜껑의 정서에 두 번 반하고,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릇을 싹싹 비우며 맛의 향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에 세 번 반하고 돌아오게 되는 곳. 그리고 부대찌개. 배고픔에서 시작 돼, 이제 한국인의 대표적 퓨전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대찌개의 역사에 동행하고 싶거든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오뎅식당'을 추천한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가는길

- 전철, 버스타고 의정부역 하차 (의정부역에서 도보로 10분)
- 경찰서 사거리에서 (구)양주군청 방면으로 가다보면 좌측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입간판 보임



허기숙 할머니

“에로티시즘” 흥미 있는 대중미술

오늘은 햇빛이 유난히 밝고 선명해 검은 셔츠에 은색의 얇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미팅에 나갔다. 날씨 핑계로 여유로움을 빙자해 한 시간쯤 일찍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 도착해 오랜만에 즐겨하는 놀이-주위의 패션을 눈여겨보며 성격, 취향, 직업 등을 점쳐보는 혼자 놀기-를 감행했다. 커피를 빼들고 앉아 출입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패션에 초점을 두고 놀이를 진행했다.

며칠, 날씨가 좋지 않아 의상에 무관심하던 강남의 패션 지향주의자들이 오늘은 눈에 띄게 화려한 색상에 짧은 차림이 많다. 단순한 색상에서부터 화려한 무늬까지 의식 없는 다양한 유행의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절과 날씨, 그리고 계절의 시작은 유행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유행을 잡아나가는 시기가 아니던가.

몇몇의 독특한 디자인이 머물고 간 다음, 눈에 쏙 들어오는 대략 30대 초반의 여성이 나의 시선을 잡았다. 뽀얀 목선 위로 얇은 은줄에 매달려있는 '울트라마린이 빛나는 진주, 약하게 비치는 블라우스와 세련된 정장바지... 서로들 싱긋 웃고는 지나쳤지만 블라우스의 실루엣에 잠시 멍하니 서있었다.

블라우스... 아직도 변하지 않은 에로티즘의 상징이었었던가?

프랑스 제2 제정시대, 나폴레옹 3세는 예술의 나체 표현에서조차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 등을 내걸며 당대 최고의 도덕지상주의를 행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러한 성의 구속은 나폴레옹 3세를 비롯기라도 하듯 한발 더 나아가 몸의 실루엣을 더욱 강조하는 반투명의 블라우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책에 따라 손목까지 꼭 끼여지며 몸에 천을 휘감고는 있지만, 얇게 비치는 분홍의 실루엣은 나체보다도 훨씬 강한 감흥과 자극을 불러일으키며 당시 급속하게 유행으로 퍼져 나갔다.



¹ '울트라마린 [ultramarine]

감청색, 바랜 듯한 색조의 보랏빛을 띤 청색을 말한다. 원래 청금석(靑金石, lapis-lazuli)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색료이며, 유럽에서는 이것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바다의 저편」이란 뜻을 가진 데서 이런 색명이 생겼다.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² 리비도 [Libido]

〈심리〉 사람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성욕, 또는 성적 충동.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기초 개념으로, 이드(id)에서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 특히 성적 에너지를 지칭한다. 융은 이를 생명의 에너지로 해석하였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이렇듯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패션의 한 형태로써 블루스가 에로티시즘의 상징적인 패션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성의 관능적 사랑의 의식과 무의식의 억압으로부터 더욱 반발적인 형태로 자리해 이러한 의식들이 대중의 성적 ²리비도를 심리적, 또는 대중문화의식으로 보여준 사례들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적 이미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 패션 등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디자인이 개발되었다. 지금의 현대 대중문화의 선두라 자처하는 광고며 미디어에서조차 에로티시즘을 결합하지 못한다면 그 매체는 결코 빛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본성이 존재하는 현시대에는 다양한 대중이 있듯이 또한 다양한 성적 대중문화가 함께 있을 것이다.

성적 애교와 유혹의 색으로 분홍, 빨강, 보라, 검정 등이 알려져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은색과 금색 또한 유혹의 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중의 감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의 다양성이 보이는 현대의 대중문화는 현대인들의 피부 속에 깊이 녹아있는 감성대중 예술에 작은 섬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다와 산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월미공원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 쪽을 위해
헤매이던 술한 방향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 서정윤 [홀로서기 中]



공원이용시간

하절기(3월~10월) 05:00~23:00

동절기(11월~2월) 05:00~22:00

공원안내

wolmi.incheon.go.kr

[032]765-4133, 440-5923





지독히도 추운 겨울에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봄꽃들이 만개할 때에는 뜨거운 여름이 더디 오기를 바라게 되더니 다시 철이 바뀌고 여름이다.

도시의 열기를 피해 녹음 속을 걷고 있자니 사시사철 가장 시원한 계절도 여름이다. 문득 사계절을 다가진 이 땅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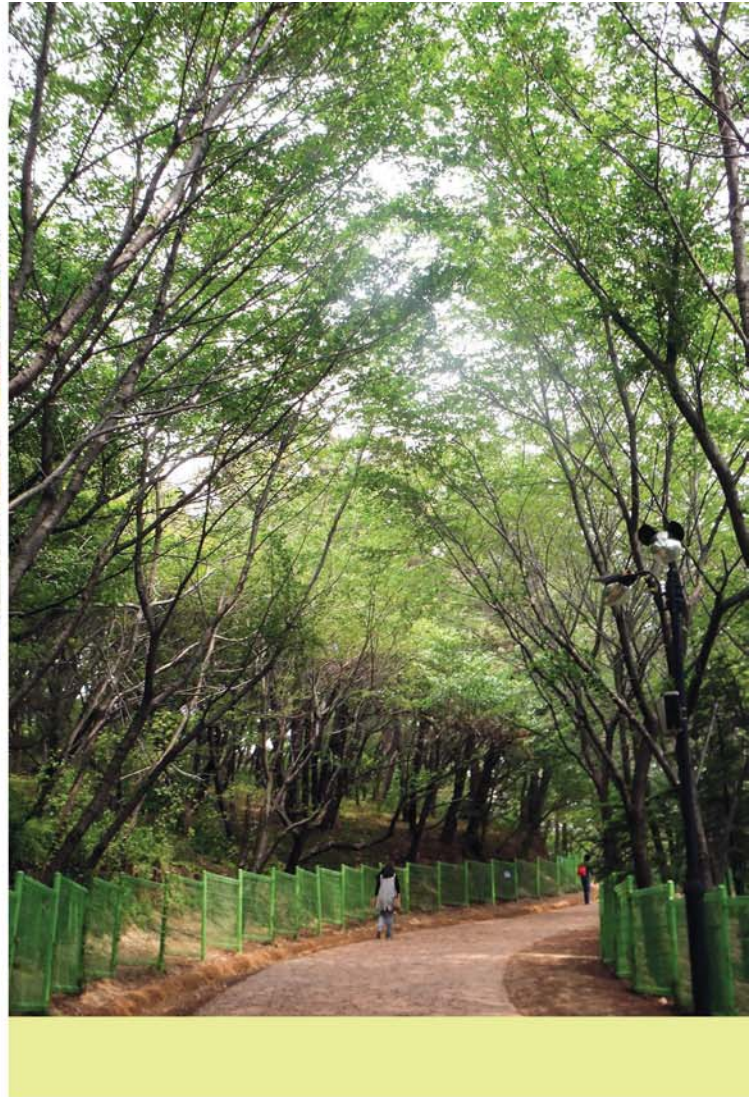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자리한 월미공원은 사람들에게 월미도 놀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월미도 테마파크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월미공원은 50여 년간 군부대 주둔으로 시민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1년 9월 10일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인수하여 공원으로 변경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교육, 생태 체험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나이에 비례해 점점 빨라지는 시계추들이 일상의 숨통을 조여올 즈음, 바람을 벗삼아 산책길을 걷고 있자니 향긋한 아카시아 향과 비릿한 바다냄새가 코끝에 닿는다.

이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자연주의자가 된다. 혼란한 멀티미디어와 자극적인 대중문화에 때로는 무자비하리만큼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연 속을 걷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월미공원의 또 다른 재미는 월미전망대를 통해 바라보는 인천항의 모습과 월미전통정원에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월미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통해 전망대와 전통공원이 형성된 후 이제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월미전망대에 오르면 무엇보다 인천항의 수문이 열리고 닫히며 망망대해로 출항했던 선박들이 입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하며, 긴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선박들이 수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느긋이 입항하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저 멀리 출렁이는 바다의 위대함에 가슴 속이 뚫리는 것도 같다.

*혼자여도 좋고, 연인과 함께 여도 좋다.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을 그 곳.*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삶의 긴장감일랑 잠시 내려놓고, 시시때때로 출렁이며 속을 뒤집던 마음의 침전물들을 정화시키고 싶을 때 흙냄새와 바다냄새, 그리고 나무냄새를 벗 삼아 숲을 걸어보라. 살균소독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향기까지 그득 담아 줄 곳이 이 길에 있다.



청운의 꿈이여~ 계속되라!!

새로이 태양식구가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 질 양 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

입 사

02/28
김영운 사원 / 총무교육팀

03/02
홍현령 사원 / 설계개발팀

03/07
김박수 사원 / 생산3팀

03/09
윤용환 사원 / 구매팀

03/14
김민우 사원 / 영업관리팀
황종열 사원 / 생산관리팀

03/15
이용문 사원 / 품질보증팀

03/21
서봉갑 사원 / 생산기술팀
박경업 사원 / 생산1팀

03/30
안재민 사원 / 생산1팀

04/05
김영태 사원 / 생산3팀

04/06
이준우 사원 / 재경팀
임태규 사원 / 재경팀

04/11
박대근 상무 / 재경본부
이원재 사원 / 생산1팀

04/15
하종길 사원 / 생산3팀

04/20
김영화 사원 / 생산1팀
손규오 사원 / 생산1팀
김형철 사원 / 생산1팀

04/25
이태성 사원 / 생산1팀
박수현 사원 / 생산3팀

05/09
김진경 사원 / 재경팀

05/11
배성호 사원 / 생산1팀
정윤우 사원 / 생산3팀

05/16
서임순 사원 / 생산3팀

05/25
신덕우 사원 / 생산1팀
엄익성 사원 / 품질관리팀
이창호 사원 / 설계개발팀

인사발령

03/01
김광두 부장 /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 태양금속인도유한공사

03/28
라민희 사원 / 해외영업팀 → 품질관리팀
이 용 조장 / 품질관리팀 → 생산5팀
유근영 사원 / 생산3팀 → 생산1팀
임병철 사원 / 생산3팀 → 생산1팀

04/11
박대근 상무 / 재경본부장
조병기 직장 / 썬테크 파견 근무
전병호 반장 / 썬테크 파견 근무
전상준 사원 / 썬테크 파견 근무

04/19
유경중 사원 / 생산3팀 → 생산1팀
윤철 사원 / 생산3팀 → 생산5팀

04/20
현성운 전무 / PM(Project Managrt)겸무
박남수 부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최현중 부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최순환 부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김성태 차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김영준 차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김일만 차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하승엽 과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김용준 과장 / FTA 원산지 증명 TFT 팀원 겸무
이정환 과장대리 / FTA 원산지 증명 TFT 간사 겸무

04/27
최응권 반장 / 생산1팀 → 생산5팀
김덕수 사원 / 생산1팀 → 생산5팀

05/02
윤철호 부장 / 사장실배속 → 기술아카데미
김봉영 기성 / 기술아카데미 겸무

05/18
정동찬 상무 / PM(Project Managrt)겸무

이중훈 부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최동배 차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김영수 차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채수홍 차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최동각 차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김현철 과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박준용 과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이두환 과장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조주호 주임 / Project-G 추진 TFT 팀원 겸무

05/25
권오신 부장 / 영업1팀장 → 영업2팀장
차준배 차장 / 신동력개발팀장 → 영업1팀장
김영수 차장 / 신동력개발팀장 겸무
오정민 과장대리 / 신동력개발팀 → 설계개발팀

승 진

04/01
[이사] 정연옥, 최병운, 박천옥

[부장] 김광두, 김동문

[기성] 김봉명

[차장] 문형운, 오재철, 추연근, 박익순

[기장] 임동규, 강대용

[과장] 최형필, 박상균, 김용준, 김동환, 윤용석, 윤태일,
박득선, 최병호, 배인승, 최신동, 이광민, 이준영

[직장] 김용재, 유홍용, 이완배, 조태옥, 봉원일

[과장대리] 민경수, 김성권, 이용성, 황정훈, 이병호

[직장대리] 황명찬, 육만철

[주임] 이현미, 이치한, 강일웅, 이현아, 장진상, 유민호,
신수봉, 신재하, 원동역, 표성훈, 조재국, 이근호

[반장] 강상구, 김종오, 송병호, 송재성, 이재운, 한동민,
최규원, 송천호, 이근재

[일반직6급] 김잔디, 최영미, 최경태

[조장] 홍병유, 이성희, 길선옥, 정종백, 김기주, 김규봉,
박병현, 신현진, 김홍만, 신철홍, 박진영, 정경선

[생산직7급] 송귀상, 이신자, 이강현, 김영순, 이영하, 박수동,
김재수, 서규상, 윤 철, 박종길, 조호성, 김남준,
김덕수, 소순식, 남청우, 전선정, 김한수, 최재용,
강경준, 유수중

家族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은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 같이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열어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0年 半世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태양금속공업(주)



since 1954

